

시론

현대를 담은 '신유 복음의 그릇' 다시 빛자



정부기 목사
에미학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신유(神癒)를 믿습니다. 이는 우리 믿음의 불변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중한 신앙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단 현장 제17조는 신유에 대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신유를 믿는다"라고 적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도 믿는 명료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어진 설명에서 "신유는 의약을 쓰지 않고"라는 문구는 1900년대 초 혹은 그 이전 시대적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21세기 현대 의학의 발전 속에서 새로운 해석과 적극적인 수용이 요구됩니다. 현대 의학, 하나님의 선물로 수용해야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에도 주저 없이 병원을 찾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학은 인간이 태어나고, 삶을 영위하며, 생명을 마감하는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에게 지대한 유익을 주는 현대 의학과 과학적 치료는 현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미 약을 복용하면서도 치유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수술 전 의사를 통한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왕성하게 사역하시는 목회자분들 중 많은 분이 현대 의학의 혜택으로 생명을 건진 받고 건강을 회복했음은 물론 아직도 의료에 의해 생명을 연장받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의학적 치료와 신앙적 치유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의료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치료 곧 신유를 믿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신유는 의약을 쓰지 않고"라는 문구는 현대적 신앙고백의 맥락에서 재고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현대 의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시선에서, 신유의 진리가 치료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장되고 적용된 적극적인 문구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약이나 과학적 치료를 부인하거나 남이 의약을 쓴다고 비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구 역시, 현대 의학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문구가 되어야 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읽히게 됩니다. 현장의 신유의 뜻 함목에서 "신유라 함은 '하나님의 보호로 육신이 항상 건강한 것'이라는 문구는 육신이 항상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온 신유의 은혜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육신이 항상 건강해지기 위한 우리의 책임 곧 먼저 스스로 행해야 할

조건들이 숨어 있는 시선입니다. 이는 단순히 병에 걸렸을 때 고통을 받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 영(Spirit), 혼(Soul), 육(Body)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책임적으로 노력해야 할 선행적 조건의 중요성이 있다는 통찰입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는 신유 복음을 아직 건강할 때 삶에서 예방적으로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이를 이름하여 '예방적 신유(Preventive Divine Healing)'의 개념을 통한 전인적 웰빙(Holistic Well-being)으로 확장하자는 시선입니다. 그런 예방적 신유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쫓겨갈까 내가 법사에 잡히도록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 1:2)"라는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영적 등 모든 차원이 역동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제시합니다. 그 결과 총민화와 삶의 의미를 느끼며 최적의 기능 상태를 유지하는 통합적인 신유의 누림을 예시합니다. 예방적 신유 곧 전인적 웰빙은 성경적 치유 원리에 현대의 총체적 건강 지식을 더하여, 아직 건강할 때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수면, 절제 등을 통해 온전한 건강함을 삶에 실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본 현장에는 현대인의 시선에서 신유의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것으로 보완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신유의 토대 위에 '신유 건강학(Divine Healing Healthology)'과 같은 전문 지식을 정립하고 성도들이 전인적인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지침서 제시할이 현대에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제언입니다.

칼럼

지친 어깨 위에 살포시 얹은 손바닥만큼의 위로



박영철 목사
참빛교회

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별것 아닌 간식 하나라도 투는 모습을 자주 본다. 그즈음 요한복음 6장 강해를 준비하던 어느 날, 오병이어를 드린 한 소년이 떠올랐다. 우리 아이들 모습(?)과 달리 갈릴리의 한 아이는 자기의 것(오병이어)을 예수님께 드렸다. 최소 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도시락을 가진 사람이 정말 그 아이 하나뿐이었을까. 그리고 왜 그 어린아이만 예수님께 자기 것을 드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을까. 어른이라면 하지 못했을 '계산하지 않는 순수함' 때문이다. 어느 시골 농가에 건기로 한 달 동안 비를 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람들은 농가에 물을 대려고 트럭을 타고 지역 정수장에 가서 물을 채워 오노라 바꿨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은 점점 시들어 가고 있었고, 개울과 하천은 땅속으로 사라졌다. 가족들은 피곤해 하고 있었고, 밭은 타들어 갔다. 그때 여섯

살 빌리라는 어린아이는 작은 손바닥에 두세 스푼 되는 정도의 물을 담았다. 아주 조심조심 숲을 향해 걸어갔다. 엄마는 아이가 걱정 되서 뒤따라갔다. 가만히 보니 빌리가 땅에 누워 있는 작은 새끼 사슴에게 물을 먹고 있었다. 빌리는 탈수와 열사병에 걸린 게 분명해 보이는 사슴에게 손에 든 물을 조금이라고 흘리지 않으려고 진득 힘을 주고 있었고 새끼 사슴은 물을 힘겹게 핥아 먹었다. 물이 다 떨어지자 빌리는 뛰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수도꼭지를 틀어 다시 손바닥만큼의 물을 받는다. 새끼 사슴은 힘을 얻었고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은 '작은 물 한 스푼에도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새신스레 깨달았다. 작은 희망이 마음 전체에 퍼졌다. 어른들도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곧 가뭄은 지나 갔고 하늘이 내리는 비를 맞았다. 경기도 포천에 한 작은 교회는 매년마다 교회와 연결된 선교사님 몇 가정을 초청해서 '선교사 초청 잔치'를 연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좋은 곳 여행 시켜드리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때로는 여유가 되면 위로금도 전달한다. 이 행사의 포스터 디자인은 매년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글귀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지친 어깨 위에 살포시 얹은 손바닥만큼의 위로"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지구촌에 선교지는 얼마나 넓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 작은 교회가 준비하는 위문회가 어떻게 열방의 갈증을 채울 수 있을까 싶지만,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손바닥만

큼의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 드린다. 사실 교회 형편을 생각하면 인력도 재정도 시간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하면 못할 일이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계산보다 사랑을 먼저 앞세운다. 열방에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전부 채워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그 교회만의 '손바닥만큼의 위로'를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는 자주 어디까지 계산하고 언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고민한다. 계산과 믿음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고민될 때는 사랑으로 결정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는 무엇일까? 손에 들고 있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와 같은,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하루 10분 기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의 말일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미미한 물질, 혹은 한 사람이 향한 내내의 사랑일 수 있다. 현실은 계산을 요구하지만, 믿음은 사랑으로 결론을 내린다. 작은 헌신도 주님의 손에 들어간다면 기적이 된다. 손바닥만큼의 위로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킨다. 지친 어깨 위에 살포시 얹은 손바닥만큼의 위로. 딱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수고를 멈추지 말자. 하루의 삶을 버겁게 살아내는 가족들, 힘을 잃은 것 같은 교회와 성도들, 우리 주변에 이웃들의 지친 어깨 위에 살포시 얹은 손바닥만큼의 위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음'을 통해 여전히 큰일을 하신다.

社說

사계절과 사중복음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일 년을 주기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절이 형성되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을 만들어 낸다. 우리 한 반도에는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금강산이 있다. 금강산은 계절에 따라서 그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계절 별 이름을 살펴보면 의미가 있다. 금강산의 사계절은 인생의 흐름과 순환, 그리고 변화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봄이 있기에 겨울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여름의 열정 뒤에 가을의 결실이 있으며, 모든 시기를 각자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결국 인생도 자연의 사계절처럼,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깊이 성찰한다면 더욱 아름답고 보람찬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일생을 사계절로 보면 금강산의 계절에 따른 변화의 의미와 비슷하다. 먼저, 금강산(金剛山)은 사계절의 봄의 이름이다. 봄에는 생명이 새로운 새싹과 그 기운이 솟아나서 즐거와 활이 나고 꽃이 피며 생명의 역동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우리의 인생도 봄은 유년기와 청춘의 시기로 미래의 소망과 가능성으로 호기심이 가득한 금강산의 봄처럼 생명의 활기가 충만하고 찬란한 시기를 의미한다. 한편, 여름을 봉래산(蓬萊山)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지난 산은 울창한 숲과 녹음 짙은 산야는 풍부한 생명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기이다.

또한 가을을 풍악산(楓嶽山)이라고 한다. 이는 부성한 여름을 지나면서 꽃잎들은 떨어지며,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고, 단풍이 들어 울긋불긋하면서 수확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장 중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들어 가는 시기이다. 이는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시기와 자신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시기요, 자신의 삶의 경험과 노력들이 무르익고 여유롭게 되는 시기이며, 자신의 삶의 내면의 깊이와 감정들이 단정처럼 물들어 가는 성숙한 계절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겨울 산을 개골산(皆骨山)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던 단풍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의 가지만 있으며, 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계절이다. 이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본질적 모습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의미 있는 시기이다.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의 존재의 본질의 중요성을 이르는 시기요, 삶의 무게와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때이다. 자신의 본질적 존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회라 할 것이다.

온전한 인간구원의 과정을 사계절에 비유하면 사중 복음이라 할 것이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도 죽은 자와 같은 나무에 생명의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 봄처럼, 죄와 사망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듭는 중생(重生)의 시절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생명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하는 성결(聖潔)의 은혜이다. 이는 생명력이 충만하여 가장 왕성한 생명의 활동력을 보이는 여름과 같은 시기이다. 그리고 생명이 건강하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신유(神癒)의 은혜가 필연적인데, 이는 가을에 해당하는 계절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원의 완성, 영원한 안식과 부활의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再臨)이다. 한 해의 마무리와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들이는 겨울의 시기는 안식과 평안 그리고 새로운 부활을 기대하게 한다.

* 오피니언 면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신문사

등록번호 서울 다 50663(2003년 9월 17일 창간 /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홍사진 사장 김충현 편집인 권순달 후원회장 박근주 인쇄인 배성환 (주)성경신문사 03026 서울특별시 중구 인왕산로 17가길 11(영춘동 1-29 총회회관)
대표전화 070-7132-0091~5 홈페이지 www.sknews.org
광고신청 안내 070-7132-0091 독자기호·제보 sknews12@daum.net

● 구독료 : 1개월 4,400원 / 1년 44,000원(VAT 포함)
● 후원·입금계좌 : 국민은행 533301-01-168714 (주식회사 성경신문사)

본지 구독후원운동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 공기식 김석태 김현기 진삼만 한춘자

(장로) 김영복 나경하 박종희 손주영 이진왕 정기소 최재희 황노연

(교회) 거룩한씨성동 서삼 성실 성홍 사랑 은강 주이루리

* 교회명으로 입금 시 교단명을 제외한 8자 이내 교회명으로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11월 10일부터 24일 입금분까지 반영. 가나다 순)

구독후원금 납부운동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랑!
그동안 예성의 교단지인 성경신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독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금과 광고로 협력해 주신 전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안드립니다.

저희 성경신문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국교회 교직자님들의 애정이 담긴 후원을 힘입어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 저희 신문사도 교단 산하의 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작은 부분이나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저희가 교단 산하 교회와 장로님들께 발송해 드린 성경신문에 대하여 문서선교적인 차원에서 2025년도 구독후원금 44,000원을 부탁드립니다. 발송된 지로용지나 국민은행 533301-01-168714(예금주: (주)성경신문사)로 송금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성성결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알찬 신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성경신문사

국내의 성결가족을 하나로 잇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교단의 정복지 성경신문을 애독해주시고 협력해주신 성결가족들께 알려드립니다. 그간 광고지원에 보여주신 성결가족들의 관심과 협조가 신문의 운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아래의 광고단가를 참고하시어 교회행사나 귀 성도들의 사업장을 전국교회에 알리는데 저희 성경신문을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광고단가

지면	규격	금액
1면	전5단 / 칼라(37cm×17cm)	1,000,000
	전5단 / 칼라(37cm×17cm)	800,000
2~11면	전5단1/2 칼라(18.2cm×17cm)	400,000
	전5단1/4 칼라(8.9cm×17cm)	200,000
12면	전면 / 칼라(37cm×49cm)	3,000,000

* 1년 장기계약을 할 경우 20% 할인된 금액으로 광고게재 할 수 있습니다.

성경신문사
문의: TEL. 070-7132-0091
E-mail : sknews12@daum.net